

# “HI에 AI 결합되면 투자 결정 빨라지고 수익률 ↑”

〈인간지능〉

〈인공지능〉

CFA한국협회 투자 컨퍼런스  
닉 폴라드 투자전문가 예측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 한계  
투자자 AI 전문지식 갖춰야



닉 폴라드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협회 아시아퍼시픽매니징디렉터(작은 사진)는 CFA한국협회가 12일 ‘투자’의 미래-인간지능 VS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에서 5~10년 이후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보다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로 인해 인원 감축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AI로 인한 변화는 모든 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로봇이 발전해도 간병인 등과 같은 서포트 케어 등 일부 분야는 사람과 접촉이 중요해 대체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존 스타인이 인간과의 상호작용 없이 기계만으로 투자 서비스를 제

공하는 로봇 어드바이저 회사인 베타먼트를 설립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히려 고객들이 인간과 접촉을 원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이 모든 영역에서 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 전문가들도 AI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능력과 방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T자 모양의 교육이 필요한데 세로축은 전문 지식이며, 가로축은 여러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은 AI를 활용하면 높은 품질의 정보를 고객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리서치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래 투자 관련 자료·통계를 통해 빠른 결정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노령화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연금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의 새로운 운용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내년에 연기금에 대한 대규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금융투자업에 서의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발전을 맡은 영주닐슨스웨덴 애테보리대학교 초빙교수는 “우리가 가진 빅데이터의 90%가 지난 2~3년간 만들어졌다”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 이전 데이터를 다 합한 양의 50 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 데이터들이 최근 나온 것이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며 시간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타오 슈 딜로이트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전쟁-영향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중 무역 마찰이 중국에게 과하지 않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면 오히려 긍정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이 금융,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무역전쟁의 유무를 떠나 위안화를 절하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이 5G,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선도해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도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는 것이 데드라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것이 화웨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등 중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체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필요할 때 켜고 끄는 ‘온-오프 해외여행보험’

NH농협손보 “혁신금융 서비스”

1호 가입자에 김광수 회장

NH농협손해보험은 12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

On-Off 해외여행보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의향상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4월 17일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이 상품은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로 한 번만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필요 시마다 보험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여행보험이다. 당장 여행계획이 없는 고객도 미리 가입 후 여행 갈 때마다 설명의무와 공인인증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 기간 설정과 보험료 결제만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금융 본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보험’ 출시를 기념해 1호 고객으로 가입한 후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으로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 출시를 기념해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농협금융 본사에서 1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김희주 기자 hjs9@

## 삼성화재 보험료로 쓸 수 있는 ‘포인트’ 도입

삼성화재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화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삼성화재는 고객에게 보험가입, 계약유지,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고객은 적립한 포인트를 보험료 결제나 포인트몰에서

물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삼성화재에 처음으로 장기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2000포인트가 지급된다.

6월 이후 장기인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계약유지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김희주 기자

## 현대해상 ‘커넥티드카-UBI 특약’ 가입대상 확대

현대해상이 ‘커넥티드카-UBI 특약’ 가입대상을 기존 현대차 블루링크 서비스 이용자에서 기아차 UVO 서비스 이용자까지 확대한다.

현대해상은 기아차 UVO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습관연계(UBI) 자동차보험을 오는 13일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커넥티드카-UBI 특약’은 지난 3월

26일부터 현대차 블루링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초 판매 개시됐다. 앞으로는 기아차 UVO 서비스 이용자도 가입을 통해 추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기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의 7% 보험료 할인 혜택에 대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5%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김희주 기자

## “취업·승진하면 대출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금융위원회, 12일부터 법제화  
요구권 안내·결과통지 의무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를 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오른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원인 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돼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전에는 이 제도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12일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와 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인하 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 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신청서 접수와 심사결과 등 관련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된다. 대면방식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방식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대면은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할 뿐 인하된 금리로 약정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선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는 11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하나-청년취업체크카드’ 전국서 즉시발급 뚝딱

KEB하나은행 영업점 확대

KEB하나은행은 ‘하나-청년취업체크카드’의 즉시발급 서비스를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최근까지 전국 52

개 지역 고용센터 인근 소재의 영업점에서만 하나-청년취업체크카드의 발급이 가능했지만 취업 준비생 손님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발급 가능점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의 대상자로 선정된 손님들

은 전국 750개 KEB하나은행 영업망을 통해 손쉽고 간편하게 하나-청년취업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하나-청년취업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손님에겐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홍민영 기자